

# 광주 살레시오여중·고, 이설 난항

광주 살레시오여중과 살레시오여고가 도심 공동화로 인한 학생수 감소 등을 이유로 옛 도심인 동구에서 광산구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법인 살레시오 수녀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측은 최근 학교 이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부지물색에 나섰다. 땅값 문제 등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첫 단추부터 애를 먹고 있다.

살레시오여중·고는 2005년 전남도청 이전을 전후로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되면서 10여 년 사이 학급수와 학생수가 모두 크게 줄었다.

고등학교는 1961년 9학급으로 개교한 뒤 1980년 36학급으로 4배나 증설됐지만, 현재는 26학급 수준에 머물고 있고, 중학교는 1996년에 9학급으로 설립 인가됐으나 현재는 8학급을 유지하기도 버거운 상황이고, 전체 학생수도 200명을 밑돌고 있다.

반면 광산구는 신규 택지지구 조성 과 초·중·고 학부모층 증가로 상당수 중·고등학교가 학급당 학생수 30명 안팎을 유지하고, 전체 재학생수도 1000명 이상인 곳이 많아 학교 신축 등 교육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살레시오여중·고 법인 측은 도심 공동화 극복과 학생수 분산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광산구 쪽으로 여중, 여고를 동시에 이전하기로 하고 1차적으로 부지물색에 나섰다. 이번이 고개를 넘고 있다.

동구 지산동에 위치한 현재 학교 부지는 여중과 여고에다 수녀원 건물까지 합쳐 2만5700여㎡에 이른다.

이에 법인 측은 현재 부지를 처분한 뒤 광산구에 24학급 300명 규모의 여고와 15학급 규모의 여중을 신축하기로 하고 3만3000㎡ 안팎의 부지를 물색중이지만 처분가격과 매입가격의 차액이 커 업무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여대 인근 등 그동안 타진해 본 부지만 20여곳에 이르지만 모두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결론이 나왔다.

법인 측은 도심 공원부지도 고려했으나 국토교통부 심의 등 절차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녹록지 않고, 독자의 가부나 투자에 의존하기도 현실성이 떨어져 고민이 깊다.

법인 관계자는 "교육청과 자치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의,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신축비로만 300억원 이상이 필요해 여러모로 여의치 않다"고 밝혔다.

## 학생수 감소로 이전 추진 중이나 부지 확보난 20여곳 물색 수지타산 맞지 않아 번번이 실패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살레시오여중과 여고가 광산 쪽으로 이동할 경우 인근 조대여중과 여고의 학생수 감소 등 공동화 여파를 차단하고,

광산에서는 과밀학급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러모로 좋을 수 있는데 부지 마련이 어려워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구에는 현재 11개 초등학교와 6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방송통신고 포함) 등 24개교 416학급에 9290명의 학생이 광산구에는 45개 초등학교, 26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등 87개교 2379학급에 2만 8469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조인호 기자



어린이 보행안전 교육 서울지방경찰청이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코리아,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등과 함께 12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횡단보도 건너기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39년 만에 광주 법정 선 전두환씨 향후 재판 출석은?

오는 4월8일 공판준비기일로 법정 출석 의무없어

연령·건강상태 등 고려 불출석 신청서 제출할 수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시체를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일 광주를 찾은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에 설까.

12일 광주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판은 보통 모두절차와 사실심리, 판결선고 순으로 이뤄진다. 형사 피고인은 이 모든 절차에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에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 씨처럼 구인장이 발부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기도 한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8일 오후 2시이다. 법정은 전날 전 씨 재판이 열렸던 201호 대법정이 아닌 354호 소법정이다.

당일은 검사와 변호인 간 증거와 쟁점 정리를 위한 공판준비기일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다음달 8일 법정에서 전 씨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판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재판기일이 지정된다. 이 재판부터는 전 씨가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변호인이 불출석 신청서를 제출, 재판장이 허가할 경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

전 씨의 변호인은 전 씨가 고령인 사실, 건강상태, 주거지와 원거리인 점 등을 들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의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전 씨는 전날 광주 재판을 마치고 귀경길에 한 병원을 찾기도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을 재판장이 허가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안다"며 "전날 전 씨의 모습을 봤을 때 향후 재판 출석이 가능해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약 불출석 신청서가 접수된다면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 다각도로 검토,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남규 기자

## 주택 신축공사장 지붕서 40대 추락 숨져

12일 오전 8시28분께 곡성군 옥곡면 한 마을 주택 신축 공사장 지붕에서 A(47)씨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가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은 목조주택 지붕에서 A씨가 발을 헛디뎠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곡성=김광휘 기자

## 청와대 사칭 문서 전국 교육청 발송 20대 검거

청와대를 사칭해 비세면지에 따른 단축수업 을 지시하는 문서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청와대를 사칭한 공문서를 교육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에 발송한 혐의(공문서 위조·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박모(28)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57분께 광주의 한 대학교 내 우편물취급소에서 청와대를 사칭, 비세면지에 따른 단축수업 등을 지시하는 문서를 교육부와 각 17개 시·도 교육청에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호응기 질환이 있는 박씨는 지난 7일 자신이 다니는 대학 교학처에 비세면지가 심각하다. 단축수업을 건의한다 고 건의했으나, 건의가 수용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보낸 A4용지 2장 분량의 문서에는 '기밀문서 표시와 함께 비세면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비세면지 관련 학부모·학생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각급 학교는 단축 수업 또는 휴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대학·인문계 고등학교 별 단축수업 시간과 차량운행 제한조치, 휴연금지 등도 포함돼 있었다.

아울러 '비행 청소년을 삼정교육대로 보내 재교육해야 한다', '청소년 범죄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대학 학제·교육과정 변경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달 말까지 미이행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37분께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청와대 사칭 문서가 배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전남우정청 아간당직 근무자의 협조를 받아 등기발송대장과 발신지 CCTV영상 등을 확인, 수사착수 6시간40여분 만에 이날 오전 0시15분께 박씨를 붙잡았다.

## 부산서 시내버스 급정거로 승객 6명 경상

부산의 한 시내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승객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사상구청 인근 교차로를 지나던 시내버스가 급정거했다.

이로 인해 버스 승객 6명(남, 여)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버스는 앞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급정거를 했고, 차량 추돌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 이별 요구 내연녀 별장 방화 시도 50대 구속

내연녀의 이별 요구에 상심해 내연녀 소유 별장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12일 오전 0시 50분께 합천군에 소재한 내연녀 A(50·대구)씨의 별장에 들어가 마루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기도한 B(52·무직)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1년간 사귀던 A씨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별을 요구하자 이날 혼자 술을 마신 후 A씨의 별장을 찾아가 불을 지르려 했으나, 대구의 집에 있던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뜻을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B씨가 방행에 사용한 휘발유는 별장에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